열두번째 이야기

온비아 수련회 소감문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다. 오늘은 BEE 성령 수련회가 있는 날이지만 나는 아침에 중요한 브리핑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핸드폰에서는 우리 반원들의 '카톡'소리가 열심히 울려댔다. 10시에 같이 모여서 연주 연습을 하고 출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이 급하다. 서둘러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좋은 날씨였다. 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 나오며 보니 나뭇잎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느껴졌다. 길옆으로 펼쳐진 가로수의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거렸다. 왠지 기분이 좋았다. 하나님이 이날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다. 기대와 약간의 흥분이 몰려왔다.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되뇌며 기도한다. '주님, 오늘 성령 수련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수련회를 통해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저를 향한 계획과 뜻하신 바를 깨닫기 원합니다.' 나는 수련회 동안 주님께 예민하게 반응하기를 원했다. 요즘 주님이 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끄시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더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다.

수원으로 향하는 도로는 아직 이른 아침이라 한산하다. 브리핑 장소에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도착했다. 그래서인지 마음이 한결 여유롭다. 브리핑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잘 진행됐다. 모두 만족해했다. 브리핑을 마친 나는 서둘러 양주 딱따구리 수련원으로 향했다. 화창한 날씨는 나를 축복하는 것 같았다. 반원들은 벌써 도착했는지 연신 핸드폰은 '카톡카톡' 해댄다. 나는 장기자랑 때 공연할 연극이 슬며시 걱정됐다. '연습을 많이 못했는데 어쩌지?' 하는 생각은 마음을 더 급하게 하고 나는 빨리 가서 연극 연습을 해야겠다는 일념에 차를 최대한으로 밟았다. 다행히 가까스로 두 시 전에 도착했다. 방 배정을 받고 반원들과 합류해 연극연습에 들어갔다. 반원들은 미리 도착해서 연습에 여념이 없어 보였다. 다들 열심히 한다. 반에서 남자가 나 한 명인데다 반장까지 맡았으니 반원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다. 몇 번의 연습을 통해 연극은 틀이 잡혔다. 이제는 실전에서 연습한 것을 얼마나 발휘하느냐이다.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연극이 시작됐다. 앞에서 미리 공연한 팀들이 잘해서인지 다들 긴장한 표정들이다. 제 1막이 시작되고 나와 반원들은 연극에 빠져든다. 어색함도 없었다. 이미 대사들은 잘 숙지하고 있던 탓인지 연기들이 자연스럽다. 나도 맞장구를 친다. 드디어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대목이다. 음향과 함께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려온다. 나는 쓰러졌다. 그리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하는 연기 속에 진심을 담았다. 실제로 나도 사울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메섹 상의 사울의 모습은 사실 몇 년 전 나의 모습이기도 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처럼 주님을 대적했던 나였다.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졌던 나였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네가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완전히 고꾸라졌었다. 엄청난 회개가 터져 나왔다.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만났다. 나는 생명의 빚진 자였다. 그때의 회심의 사건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연극 속의 거꾸러진 사울의 모습을 사실 나였다. 하나님은 연극을 통해 내 안의 아직 죽지 않은 나의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길 원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연극은 끝마쳐지고 우리는 일등을 했다. 열심히 했지만 일등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다른 팀들도 많이 준비했고 다들 열심히 했기 때문이다. 우리 반원들은 큰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뻐했다. 아마 스스로가 대견스러웠나 보다. 사실 우리 반은 다른 팀에 비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하긴 힘들었다. 그런데도 일등을 했으니 대견스러워 할 만 했다. 반원 모두가 아이들처럼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었다. 우리들에게는 이번 수련회의 기억이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이번 수련회는 주최 측의 세심함이 느껴졌었다. 잠자리, 간식, 식사, 프로그램 등 모든 것에서 정성을 다 했던 스태프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자칫 처음 자리라 어색할 수 있었던 수련회였는데 스태프들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그래서인지 긴장했던 마음들이 풀어지고, 서로를 격의 없이 나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특히 나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은 BEE의 사역이었다. 내가 BEE 교재를 통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은 신학교에 못지않은 굉장한 체계적인 내용과 나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정확한 말씀 전달 능력에 놀랐었다. 그런데 이런 BEE 사역이 세계 30개국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다. 그리고 참 복음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상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BEE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모은 두 손 위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위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마치 나의 고백처럼 쌓여갔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를 이끄소서!' 기도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렴풋하게 느껴졌다. 어쩌면 수련회 전에 갈망했던 것에 대한 주님의 응답일까?

싱그러운 풀 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상쾌한 바람은 봄 내음을 가득 담아 우리를 꽃 잔치로 초대하고 반짝이는 햇살은 사랑을 가득 담아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우리를 축복한다. 이름 모를 새 한 마리가 긴 울음소리를 남기며 창공으로 솟아오른다. 마치 우리를 잘 가라며 배웅 하듯이…. (글:서빙고 목오반 윤승지, 편집:이경주)

BEE 소식

- 5.5~6일 예닮원에서 110 분 넘는 가족이 함께 모여All & One 행사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5.20~24 알 브리지스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시편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